광주·전남 상장사 매출 늘었지만 순익은 별로

■ 12월 결산법인 24개社 분석

총 매출 6조6천억…전년보다 23% ↑

반면 순이익은 1,248억으로 '반토막'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의 매출액은 대폭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상장사들은 1천원어치의 물건을 팔아 49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치는 등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불안 등 대내외 악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기업중 12월 결산법인 24개사(코스피시장 15개, 코스닥시장 9개)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6조5천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5조3천581억원)에 비해 23.1%(1조2천3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개 업체가 새로 상장된 데다 금호타이어 등 주축 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은 2006년 2천518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지난해에는 1천24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연일 치솟은 데다 환율불안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탓이다.

특히 지난해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4.9%까지 추락했다. 이는 1년 전(5.6%)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1천원어치의 물건을 팔 경우 49원밖에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별 매출액은 금호타이어가 2조2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호산업(1조9천173억원) ▲조선내화(3천253억원) ▲한국화인케미칼(2천767억원) ▲해원에스티(2천223억원) ▲부국철강(1천886억원) 등의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은 한국화인케미칼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산업(399억원) ▲광주신세계(273억원) ▲조선내화(202억원) ▲화천기공(125억원) 등으로 흑자기업이 17곳에 그쳤다.

반면 전국 코스피시장 상장사들의 실적은 3년 만에 호전돼 광주·전남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555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718조6천71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조선과 해운, 기계업종 등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당기순이익도 총 48조8천660억원으로 2006년보다 15.8%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총 53조5천17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04년 사상 최대 호황 이후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를 뛰어넘지 못하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901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70조8천69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71%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5%, 50.2% 줄었다.

■ 작년 광주·전남 상장사 매출액·순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코스피시장	매출	증감	당기순이익	증감
광주신세계	184,849	27.3	27,385	29.1
금호산업	1,917,318	17.7	39,914	-79.5
금호타이어	2,029,309	11.9	-24,227	적자전환
동아에스텍	52,675	0.2	5,264	-18.3
고려시멘트	118,809	2.0	375	74.4
디에스알제강	85,225	22.6	4,872	320.3
로케트전기	44,990	-13.9	-3,774	적자지속
보해양조	125,495	14.4	6,026	-2.3
대유디엠씨	128,587	36.4	-5,971	적자지속
샐런	167,743	56.7	10,418	358.9
엠앤에스	152,702	43.0	2,002	흑자전환
C&중공업	125,162	-	-19,304	-
조선내화	325,319	6.8	20,214	-16.0
한국화인케미칼	276,750	-	40,563	-
화천기공	142,858	15.2	12,544	25.1

코스닥 시장	매출	증감	당기순이익	증감
디지털텍	32,298	-6.9	769	-76.3
부국철강	188,654	5.5	4,818	-25.8
서산	36,459	-0.95	1,925	흑자전환
성원파이프	129,605	41.4	6,708	84.6
와이엔텍	18,903	12.1	2,322	-14.2
파루	18,038	119.1	533	흑자전환
해원에스티	222,301	13.9	-2,101	적자전환
행남자기	48,454	1.4	288	흑자전환
폴리플러스	20,674	7.8	-6,762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기원 바자' 박광태(오른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장 등이 3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마련된 '광주U대회 유치기원 바자'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장환)는 이날 1억원의 유치후원금 기탁과 함께 3~20일 바자를 진행,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남홍 기아차 사장 "유동성 문제 없다"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3일 기아차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금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최한 '무역수지 적자관련 수출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금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투자를 1조원 이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차가 소하리 공장의 일부 설비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을 들어 '기아차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사장은 최근 '세일 앤 리스백'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간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설명한 뒤 "올해가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전환배치 문제도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노사간 계속해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 경쟁이 심해졌다"며 "특히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쟁국 만큼, 경쟁사가 받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3월 자랑스런 중기인' 아륭기공 장춘상 대표

장춘상 아륭기공 대표(64·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사진)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3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최근 선정됐다.

장 대표는 1976년 회사설립 이후 80년 공작기계 핵심부품인 오일펌프를 국산화해 15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국내수요량의 50%)를 거뒀다.

특히 특허출원 4건, 디자인등록 3건 등 다양한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3개국에 250만달러 어치의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등 올해 131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250만달러를 투자, 중국 대련에 현지 법인과 연간 5만대 생산라인을 착공했다"며 "3~4년 내에 연간 500억원대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펌프시장 다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商議, U대회 유치 지원 등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는 4일 국무총리 초청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상의회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현안 해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3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조성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지원 ▲광주에 대한 연구개발(R&D)특구 지정 등 3건의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광주가 신 성장축으로 발전해나가고 서남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국미니스톱 창업 설명회

5일 광주무역회관

한국미니스톱(대표 이상복)은 5일 오후 2시 광주무역회관 12층에서 '창업설명회'를 갖는다.

한국미니스톱은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국유통대상 편의점 부문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패스트푸드 전용 조리실을 갖추고 기존 편의점과의 차별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전국 1천1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사진〉

설해수 영업지원부장은 "이번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창업희망자에게는 맞춤형 개별상담과 선배창업자와의 창업사례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952-1171.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